



自治体国際化協会

세계 각지의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JET OB 회 여러분들께서 이번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깊은 애도와 피해를 입으신 분들 및 지방자치단체로 보내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편지와 의연금 등을 저희 크레아 도쿄 본부와 각 해외사무소로 보내주셨습니다. 마음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중일 3개국 지방정부교류회의와 일불자치체교류회의, JET OB 회에 더해 미국, 호주, 영국, 뉴질랜드 등의 자매도시를 축으로 그 지원의 폭이 점점 넓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매·우호관계에 있는 각 해외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피해지의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크레아는 자매·우호교류의 촉진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자매·우호관계를 통한 평소의 지역간 교류, 민간교류가 어떠한 국면에 있더라도, 예컨대 지금과 같이 대지진 참사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라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력히 재인식하였습니다.

재해를 입은 JET 참가자들 중에는 재해지역에 남아서 이번 대지진으로부터의 복구·부흥을 향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불런티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역 JET 참가자들의 대부분이 참가하고 있는 네트워크 조직「AJET」도 재해 관련 정보를 외국어로 제공하거나 의연금 모금 활동 등 불런티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JET 프로그램 참가자의 OB 조직인 JETAA 가 세계 각지에서 재빠르게 일본지원을 위한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이 JET 프로그램 관계자분들의 용기있는 그리고 가슴 뜨거워지는 피해지에 대한 지원 활동에 가슴깊이 감사 말씀 드립니다. JET 프로그램의 긴 역사를 통해 쌓아올린 일본과 JET 관계자분들을 이어주는 끈끈한 인연에 새삼스럽게 힘을 얻고 있습니다.

JET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피해지역의 학교에 근무했던 미국 청년 두 사람이 희생되신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이들은 일본과 제자인 일본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모국과의 가교가 되고자 매일 열심히 활동하며 또 주민들에게 깊은 신뢰감과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활동을 알면 알수록 JET 프로그램이 각 지역에서 훌륭한 역할을 달성해내고 있는 것에 감동을 느낌과 동시에, JET 프로그램의 일익을 담당하는 영광과 책임의 막중함을 통감합니다. 두 사람에게 깊은 애도와 감사의 마음을 전함과 동시에 두 사람의 활동을 소중히 여기며 더욱이 보다 나은 JET 프로그램이 되도록 전진해 가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럴 때일수록 국제적인 민간교류로 쌓아올려진 신뢰를 더욱 강건히 하고 피해지역이 하루 빨리 부흥하여 일본 전체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공헌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각 지자체에서는 학교에서의 외국어 교육과 지역사회에서의 국제교류를 향상시키기 위해 JET 참가자들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크레아에서는 특히 피해지의 상황과 당면한 원자력발전소에 관해서는 정부 그리고 각 지자체와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지에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JET 참가자들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크레아도 그리고 일본 각지의 사람들도 새로운 JET 참가자분들과 만나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크레아에서는 재해 발생 직후부터 피해를 입은 외국인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에 관해 다언어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각지의 지역국제화협회의 각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자와 연계하면서 피해를 입은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전개해 가겠습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노력에 있어서도 크레아 해외사무소와 긴밀히 연계하여 각지의 지자체의 해외 활동을 지원해 가겠습니다.

크레아는 이번 재해에 대해 보내주신 세계 각지의 JET 참가자들과 지자체, 시민 여러분들의 강력하고 따뜻한 지원을 밑천으로 국제화를 통한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계속해서 지자체의 다양한 교류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촉진해 가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저희들은 대지진 참사를 겪은 일본을 보다 좋은 나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은 일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비슷한 어려운 자연환경에 처한 여러 나라를 위함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 크레아를 방문해 주신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본은 홍수, 지진, 화산활동 등을 극복해 고도의 경제 발전을 이루어 좋은 사회를 만들어 왔다. 우리나라도 지진, 홍수, 화산활동 등 자연재해가 있는데, 일본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쌓아올린 오늘날의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 좋은 자극이 되고 있다」 라고.

여러분의 지원과 세계적인 연대에 힘 입어 앞으로도 도쿄 본부와 각 해외사무소는 크레아의 사업에 정진해 가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사장 木村 陽子